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기독교의 세속적 가치    성경: 잠언 30장 5~10절

Tag: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7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10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잠30:5-10)

기독교는 세속적 가치들에 대한 매우 분명한 이분법적 변별성을 가지고 있다. (성속의 구분, 거룩하다 더럽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7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삼상2:7)

-긍정적 평가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딤후 6:10)

-부정적 평가

돈이란 세속적 가치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가치로 취급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돈의 기본 기능은 가치에 대한 객관적 잣대로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기능이다. 가격을 말한다. 그런데 이 돈이 진짜로 객관적 잣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곧 국가 권력이다. 국가가 없다면 돈은 의미가 없다. 즉, 돈이 그 가치과 기능을 잘 발휘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이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군대를 비롯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를 둔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 가운데 정치가 두 번째로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렇다고 국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면 결국 국가는 망하고 만다. 국가는 개인이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고, 개인은 국가의 보호와 통제 아래 맘껏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는 부강한 국가가 된다. 그렇다면 부의 분배는? 종교의 몫이다. 재의 분배에 국가가 나서면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킨다.

(좋은 국가는 외국인들이 이민오려고 애쓰는 나라이고, 나쁜 국가는 국민들이 탈출하려고 애쓰는 나라이다.-망해가는 나라. 불량국가. 개인의 자유보다 권력자들의 탐욕이 우선인 나라. 북한. 공산당 독재를 위해서 인민을 억압하는 나라. 이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다.)

돈, 국가, 개인의 자유(행복을 추구하는 권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한하는 법, 그것들을 다스리는 정치 등이 중요한 세속적 가치들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자.

돈의 기능이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

모두 다 아는바와 같이 돈은 경제적 역할에서 탁월한 편리성을 제공한다.

또한 돈은 잉여가치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종교개혁 이후) 성경에는 부를 쌓아 놓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잉여가치를 산업혁명에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람들은 돈의 미래가치까지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미래가치는 반드시 신용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제도를 만들어 돈에게 신용가치까지 붙여 넣어주게 되었다. 그러면서 돈은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박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자들이 있다. 이들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다룰 예정이다.

돈은 개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가장 폭넓고 강력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힘을 소유한 자에게 제공해 준다.

왜냐면 돈이란 모든 물질과 서비스의 총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법과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예들 들기 위해서 간단히 돈에 대한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지만, 사실 기독교만큼 세속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복적인 종교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독교는 돈에 대한 이런 긍정적이고 정확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국가들은 그렇지 않는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 (타 종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며, 운명론으로 빈부격차의 문제를 비켜간다.)

산업이 발달하는 나라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하였고 암울한 예견들이 난무했지만, 돈의 힘으로 대부분 극복했다. 환경의 문제도, 빈부격차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에너지의 문제도, 정치체제의 문제도 축적된 자본을 선하게 사용하고 자유시장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하였다.

\*두 번째 주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세속적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기독교는 세속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절대적 가치들의 범주에는 결코 세속적 가치가 낄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독교에서 절대적 가치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치이다.

하나님은 절대자시며, 창조주시며, 주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절대적 가치로 삼는다. 생명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절대적 영역에 속한 것이고, 사람의 영혼이 바로 그 가치에 속해 있으며, 영혼은 이 세상에서 탄생하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절대적 가치는 결코 세속적 가치와 비교될 수 없다.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자주 절대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를 비교하고 둘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다.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  
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6:24)

그렇다면 절대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는 너무 다르고 질적인 차이가 많아서 서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절대적 가치를 품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세속적 가치들이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속적 가치들이 거룩해진다.

기독교는 세속적 가치들에 대한 매우 분명한 이분법적 변별성을 가지고 있다.(설교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들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속적인 가치들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정의로운가, 아니면 악하고 불의한가가 구별된다.

예를 들면 돈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다만 선한 사람의 손에서는 선하게 사용될 것이고, 악한 자의 손에서는 악하게 사용될 뿐이다.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4:4-5)

다시 말해서 세속적 가치는 결코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거룩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원칙을 돈에 적용한 사람들이 있다. 아까 내가 돈의 기능과 잉여가치 저장능력과 산업혁명과 돈에 신용기능을 붙여 넣음으로 인한 금융제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간 자들이 있다. 고 하였다.

바로 이 신용의 영역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고백한 돈이 있다. 바로 달러다. In God We Trust. 1864년 처음으로 사용됨. 이후 이

문구는 미국의 모토가 되었고, 미국의 지폐와 동전에 새겨져 있다. 지금도 미국민의 90%는 이 문구에 대해 찬성한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사용된 God 이라는 단어는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뇌피셜에 불과하다.)

(Annuit COEPTIS 안누이트 코엠티스, Novus ordo seclorum 신세계의 새로운 질서; 전시안, 미완성 피라미드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의 눈.-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으로 오해 받음. 신세계 질서에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도안. 피라미드 밑에 1776은 미국의 독립을 의미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에서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이 도안을 넣었다고 한다.) (미국 돈에 있는 신앙 고백 때문에 반대하는 자들이 많았고, 수없이 많은 법정 다툼이 일어났다.)

물론 모든 미국 돈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미국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원하며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후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었고, 미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단순하게 여러분의 세속적인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절대적 가치로 세속적 가치를 거룩하게 하시라. 아멘.

8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라는 기도는 두가지 경우가 모두 악하다는 뜻은 아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위함이니이다

<찬양예배>

제목 :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성경: 야고보서 3장

Tag: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약3:1-18)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보통은 말에 실수가 많다.

왜 말에 실수가 많은가? 무의식과 생각 속에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또 오해영. 네가 밥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졌다. 저질 양아치 어법.

해서는 앓될 말. 결코 잊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말.

헤어져서 슬픈게 아니라, 모욕 당해서 슬퍼함. 자존심이 상한게 아니라, 중요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미안하고 용서를 빈다고 끝나는 말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는 말.

우리에게 이런 상처와 상처를 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시기와 다툼이 있다.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신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에게서 받은 말이나 태도 때문에 상처입은 자존감

부모, 형제, 친구, 사랑하는 사람, 부부, 영적 리더

상처입은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힌다.

누군가 나를 상처준다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상처를 입힌 사람의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치유 받는다.

모든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은 사실일지라도 거짓말인 이유는 그 사실 자체가 치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치유될 필요성에 대한 사실적시일 뿐이므로 교만으로 받지 말고 상처로 받지 말라.

실제로는 상처가 되므로 통전적인 치유가 필요하며, 시간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성령으로 악을 이기고, 헛된 자존감을 발동시키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

시기=교만에서 비롯됨;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낮다고 봐야 함(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존중히 여기고, 장로들은 배나 존

경해야 함. 장로는 배나 더 신중하고 겸손해야 함.) 각 사람은

다툼=거짓에서 비롯됨; 누가 거짓을 믿고 있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음.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신념은 무시하고 공격하려고 함. 그러나 나에게도 거짓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